기독일보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 www.christiandaily.co.kr |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43호

2050년 기독교인 33.3억 명·무슬림 28.6억 명 예상

무슬림 증가율 더 높아… 아프리카·아시아 기독교인 증가 전망

세계 기독교와 이슬람의 인구 수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기독교 인구는 앞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크게 증가하는 반면, 유럽과 북미에서는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미국 고든콘웰신학대학원 세계기독교연구센터가 과거부터 미래의 기독교 인구를 예측한 자료를 14일 소개했다.

◈1970~2050년: 기독교인 2.7배↑ 무슬림 5배↑

이에 따르면 1970년대 약 12.2억 명이었던 기독교인은 2024년 현재 약 26.3억 명으로 늘어났고, 2050년엔 약 33.3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무슬림의 증가세는 기독교인보다 더 높다. 1970년 5.7억 명 수준에서 2000년도 13억 명으로 급증한 후 2024년 약 20.3억 명이 됐고, 2050년에는 28.6억 명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인구 차이는 1970년 약 6.5억 명에서 2050년 약 4.7억 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이 기간 기독교인은 약 2.7배 증가하지만 무슬림은 약 5배가 늘어난다.

◈아프리카 기독교인, 1970년 1.4억 → 2050년 12.9억

한편,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5개 대륙의 2050년 기독교 인구는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12.9억 명, 이어 남아메리카 6.8억 명, 아시아 5.9억 명, 유럽 4.9억 명, 북아메리카 2.6억 명 순으로 예측됐다.

1970년부터 2050년까지 대륙별 기독교 인구 증가율에서도 아프리카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프리카는 1970년 1.4억 명 수준에서 2050년 약 12.9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돼, 증가율이 821%였다.

증가율 2위는 아시아로 1970년 1억 명에서 2050년에는 약 5.9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증가율은 490%였다. 남아메리카도 이 기간 증가율은 152%(2.7억 명→6.8억 명)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이 속한 북아메리카는 1970년 2.2억 명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보다 더 많았지만, 2000년대 그 수(북아메리카 2.5억 명, 아시아 2.8억 명, 아프리카 3.8억 명)가 역전됐다. 이 대륙의 2050년 예상 기독교 인구는 2.6억 명으로 1970년의 그것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1970년 4.9억 명에서 2000년대 5.6억 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그 수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 2050년엔 4.9억 명으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밖에 2024년 기준 기독교인의 분포는 북반구 32%, 남반구 68%로 기독교인 3명 중 2명 이상이 남반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영 기자

한교총 "한기총·한교연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최선"

한교총이 14일 '연합운동공로자 초청 오찬'을 가졌다. ⓒ한교총

14일 '연합운동공로자 초청 오찬' 가져
이철 감독회장 "연합 노력 멈추지 말아야"
장종현 대표회장 "먼저 내려놓음으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14일 오전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연합운동공로자 초청 오찬'을 가졌다. 한교총은 "연합운동에 협력한 공로자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날 오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교총 회원교단 증경총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대표회장 임석웅 목사(기성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예장 대신 총회장 임병무 목사의 기도, 공동대표회장 이철 감독회장(기감)의 설교,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의 환영인사, 명예회장이자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인 김선규 목사의 축도로 이어졌다.

이철 감독회장은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그는 "한교총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연합을 잘하고 있지만 아직 한기총과 한교연이 남아 있다"며 "가능한 통합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연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연합의 목적은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자"며 "그간 연합을 위해 힘써주신 선배님들과 동역자들께 감사드리며,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앞으로도 기도와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그동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인사했다.

장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교파와 교리적인 문제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한기총·한교연 등 연합기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내려놓음으로 최선을 다해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한교총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인사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는 등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한교총 명예회장 소강석 목사의 오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교총은 "현직 회원 교단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교계 원로들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위해" 매년 5월 교단의 추천을 받아 연합운동공로자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80대 女전도사, '여성 안수'에 "지위 상관 없어, 사명 따라 상급 받아"

올해로 83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남대구노회 논공교회 오홍연 여성 전도사는 최근 교단 일각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해 달라는 목소리에 대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주께 하듯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은 지위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명을 받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자"고 했다. 그녀는 4년 전 시니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

오 전도사는 최근 예장합동 교단이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사역자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녀는 이날 "성경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나왔다. 모든 사람은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은 지위에 상관없이 사명에 따라 공평하게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자 졸업생 일각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내게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에 써주시는 것에 무한 감사하며 충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여성 전도사의 사명은 꽃봉오리와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신다"고 했다.

이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잘 인도해주셨으면 한다"며 "지위가 어떻든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언 31장 30절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다.

특히 "화와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만 외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쁨으로 주님께 향후 일들은 맡기고 현재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길 바란다"며 "십자가를 짊어지면 부활이 있다.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좇으면 십자가도 더 이상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고 했다.

오 전도사는 1963년 호원신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예장 합동과 통합이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문제로 분열을 겪었던 일을 직접 목도했다고 한다. 그녀는 신학교 졸업 이후 사모로 사역하다 1982년도에 대구신학교에 입학해 1984년에 졸업했다. 그리고 넷째 늦둥이 아들을 낳은 지 8개월째인 1986년 어느 날 목회자였던 남편이 위암으로 소천한 일을 겪었다.

오 전도사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 6장 26절)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남편의 소천 소식을 접한 뒤 대구성원교회에서 7년 동안 여자 전도사로 사역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맡기며 사니까 우리 가족 5명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셨다"고 했다.

이후 1993년 오 전도사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됐다. 남겨진 자녀 4명 중 첫째 아들은 당시 대학을 졸업한 뒤 선교사로 미국에서 나갔고, 둘째 딸은 대학을 갓 졸업해 결혼했다고 한다. 둘째 딸이 늦둥이 막내아들을 키웠다고 한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시편 23편 3절)처럼, 자식 4명 모두 일탈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키워주셨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올해 83세인 예장합동 오홍연 전도사 ⓒ노형구 기자

[인터뷰] 당진성결교회 우경식 위임목사 » 7면

조성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 » 22면